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1517년 10월 31일) 491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배 후 교육관에서 10월 정기 임원회가 열립니다.

오늘 오후 집회는 몽골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위해 다녀온 현장 답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녹색꿈을 꿀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교육이 오후집회 후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예배는 1,2부 연합으로 11시에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없습니다.

제7 여선교회가 주관하는 초록장터가 11월 9일에 열립니다. 이를 위해 물품을 기증 받습니다. 물품은 지하 유치부실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련회가 11월 7일(금) 용인 심소재에서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오후 5시에 출발합니다. 환경부원이 아닌 분들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삶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바꾸어야 할 것을 결정하여 바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새교우 소개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자비하신 하나님, 부족한 입술이지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물 많은 우리 자신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가을 하늘만큼 넉넉한 주님의 품에 기쁜 마음으로 안기길 원합니다. 탕자를 안아주던 아버지처럼 주님, 우리를 안아주십시오. 주님의 품 외에는 우리들의 영혼이 설 곳은 없습니다.

주님, 단풍잎이 고운 선을 그리며 땅으로 떨어지는 이때에, 돈의 가치도 떨어지고 사람들도 고개를 땅으로 떨구고 있습니다. 물질을 삶의 근본으로 삼은 이 사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 삶의 뿌리를 살펴보게 해주십시오.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던 이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헌금:

김춘려 김철수 유영남 한완식 임정자 김근종 정옥영 김혜권 박창운
 허정윤 서원금 안정숙 이봉옥 이예정 임원민 임수연 임영 정경례
 정완수 김재광 전월수 맹은선 최윤희 김민정 허호범 권미숙 오재한
 김주경

월정헌금:

고속이 권혁순 박해경 김극 김남종 오복순 김현영 정원석 박석희
 조항미 배부례 이갑재 이봉배 이유선 방극숙 이인웅 하정석 이명희
 하현철 최성애 권순 윤정화 이해동 황의일

감사헌금:

시므온선교회 나오미선교회 정완수 김재광 임창선 김영한 이희균
 이재문 김민정 김정길 최숙화 김용길 최영혜 김주경 홍순구 안홍숙
 장영숙 김지현 김지은 박은정 홍정호 박진희 정원석 김현영 김준호
 광혜자 무명5

생일감사헌금:

박옥식 방문성 유영남 이동현 조병주

녹색꿈헌금:

김인걸 문금석 김용길 최영혜 하진솔 무명2 (누계: 4,896,000원)

	장혜숙	장혜숙	송임희	조순덕
	노순옥	정경례	배부례	김영한
	임정자	임정자	임정자	이재문
	문영혜	박경선	박경선	박정숙
	안정숙	박애순	문금석	안정숙
	박홍재	곽권희	김춘려	김순복
	박효선	허정윤	임미심	김현주
	최숙화	권미정	최숙화	권미정
	이순정	김금순	강순배	유영남
	이형숙	권미숙	권미숙	이형숙
	안홍숙	오현정	정현주	박찬정
	백혜숙	정옥영	백혜숙	정영선
	송양진	유경순	박옥식	이현숙
	이영란	박미영	배삼순	박미영
	박혜경	최영혜	박혜경	조항미

자유의 도상에 있는 정거장

행동.

제 멋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행하고,
 가능성 속에서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을 과감히 붙잡아라.
 자유는 도망치는 생각 속에 있지 않고 행동 속에만 있음이니.
 하나님의 계명과 그대의 신앙만을 수레 삼아,
 불안하게 머뭇거리지 말고 사건의 폭풍 속으로 들어가라.
 자유가 기뻐 소리치며 그대의 영을 맞이하리니

고난.

놀라운 변화! 힘차게 일하는 손이 그대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대는 지금 그대의 행위가 한계에 이른 것을
 힘없이 외롭게 지켜보고 있군요.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참된 것을 차분하고 침착하게
 보다 강한 손에 맡기고 만족하세요.
 한순간이라도 자유를 접하는 복을 얻게 되거든,
 자유를 하나님께 넘겨드리세요. 그분이 멋지게 완성하실 것이니.

죽음.

어서 오라, 영원한 자유의 도상에 있는 성대한 향연이여, 죽음이여
 덧없는 육신의 성가신 사슬을 끊고, 눈먼 영혼의 벽을 허물라.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던 것을 마침내 볼 수 있게.
 자유여, 우리는 오랫동안 훈련하고 행동하고 고생하면서 그대를 찾아다
 녘노라.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하나님 얼굴에서 그대를 보노라.

-디트리히 본회퍼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주위에 불평할 것들,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을수록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결과에만 집착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뿌리를 살피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를 유혹하는 화려한 거짓들에 한눈팔며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몽골 리포트	성서로 배우는 평화/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기도 / 손성현 전도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윤석철 장로	권 순 집사

10월	영접위원	한완식 김중수 박범희 고숙이 박미영 오자영
	헌금위원	한완식 안홍숙(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어린이들이 기도를 해야하나?

과연 기도가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일까? 여기에는 다섯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 다섯 가지 이유는 신학적이면서 교육학적인 성찰의 결과이기도 하다. 기도는 신앙과 관계된 것이면서 동시에 인간 존재의 핵심인 마음의 도야陶冶와 관계된다.

기도가 꼭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고요함'의 경험이다. 기도는 잠잠해지는 것, 고요함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교육학자 마리아 몬테소리도 어린이에게 고요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있다.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은 일종의 집중 훈련이면서 명상 훈련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본 경험이다. 마음을 모아 자기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것, 요즘 일부 학자들이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이른바 '제3의 귀'로 듣는 능력은 오늘날 희귀한 일이 되었다. 대중 매체와 오락 산업으로 시끌벅적한 이 세상에서 어린이건 어른이건 고요함을 경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다. 그러므로 고요함의 훈련은 아동기의 변화, 어린이들이 살고 있는 구체적 현실의 변화를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한 교육 과제이다. 요즘 어린이들도 다시금 고요함에 매료될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 고요함은 어색하고 낯선 것, 그래서 거의 모험이라고 할 만한 경험이다. 아마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요함의 훈련은 언제나 기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역으로 어린이와 함께하는 기도가 고요함의 교육 문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에게 기도가 꼭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기도가 제의祭儀라는 것이다. 바로 그것 때문에 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거부했다. 어린이들의 기도 역시 공허한 제의일 뿐이며,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기도의 물레방아'라는 것이다. 이런 비판에는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다. 어린이와 함께하는 기도가 생기 없는 형식이나 아무 의미 없는 단순한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더욱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어린이들에게 아무런 확고한 형식도 제공해주지 못하며, 어린이들이 자라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의적 요소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렸

다는 사실이다. 아동심리학에서는 제의의 중요성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제의는 인간에게 안정감을 주고, 버려짐의 감정이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이제 어디서 그런 제의를 경험할 수 있는가? 부모와 함께하는 식사 시간의 제의적 의미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세 번째 이유는 '신뢰'와 '아늑함'의 경험이다. 엄마와 함께하는 기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누워서 드리는 기도, 잠에 들락 말락 할 때, 따뜻함, 편안함.....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단다." 이런 기도를 들으면서 어린이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알게 된다.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우리를 감싸안고 떠받치는 힘이 있다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든든함이 있다. 이로써 기도는 단순히 어린이와 함께하는 신학 혹은 성경 이야기 구연의 차원을 뛰어넘는다.

어린이에게 기도가 필요한 네 번째 이유는 쉽게 잊히곤 하는데, 지금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한 '함께'라는 말을 생각해보자. 정말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과 '함께'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린이와 더불어 기도하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어린이와 함께하는 공동체,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아이들에게 아주 특별하고 강렬한 체험이다. 내가 만난 청년들 중에서 적지 않은 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와 함께 기도 좀 해봤으면'하고 느낄 때가 많았다고 한다. 그들이 갈망했던 것은 어떤 특정한 기도라기보다는 부모와의 긴밀한 유대감이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유도 다른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도는 '희망'의 징표다. 기도는 희망이 생겨나고 희망이 강해지는 길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에 저항하는 탄식이며 희망이다. 기도란 이 세상의 위협과 절망에 맞서 희망을 굳게 붙드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기도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한 말이 아니다. 그리스도 이전에도, 또 그리스도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시편22편에 기대어 기도했다. 두려움과 위협에도 꺾이지 않는 희망! 이 희망이야말로 오늘날의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핵무기로 인한 파멸의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 환경 재난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에 직면한 어린이들에게 천박한 '긍정적 사고'나 피상적인 낙관론이 아니라 진정한 희망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프리드리히 슈바이처 「어린이의 다섯 가지 중대한 질문」 중에서